

백승우의 <세븐 데이즈>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오후' '월요일 밤' (...) '일요일 아침' '일요일 오후' '일요일 밤' 까지 일주일을 칠일로, 하루를 셋으로 나누어 소재목을 단 총 21점의 사진 연작이다. 우리 인간은 사실상 연속된 흐름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편의상 초, 분, 시, 일, 주, 월 등의 객관적 단위로 구분해 인식한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과 상이한 시간의 인위적인 구분에 관해 말하고자 의도적으로 하루에 세 번, 일주일 동안 동일한 시간대에 사진을 찍은 것일까?

작가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가 그러한 직접적인 화법의 작가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유추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간상의 규칙이 아닌 공간상의 규칙을 따른 사진들이다. 즉 사람들이 으레 제목에서 기대하는 사진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치(背馳)시키는 것이 이 작업의 전략이다. 작가는 미리 작품 제목을 정해놓고 그와 무관하게 모든 사진을 도쿄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신이 세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촬영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 여행을 떠올리는 지역들을 추적해가다가, 작업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도쿄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 할 만한 곳들을 따라 이동했다. 단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곳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상징적 건축물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피하고 당시 작가의 눈에 즉각적으로 들어온 의외의 장면을 위주로 촬영한 후 그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기호나 정보가 담긴 사진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였다. 사실상 도쿄라는 공간은 작가가 전시나 작업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곳이지만 그가 관계하는 몇몇 장소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에게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스펙터클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바라보는 도쿄는 그의 시각에 따른 편향된 해석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각에는 실제와는 다른 오류의 가능성이 늘 잠재되어 있다.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아닌 잠시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피상적인 이해와 왜곡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작가는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작품 안에서 확대시키고 있다. <세븐 데이즈>의 이미지들은 작가의 직관과 감각에 의해 포착된 것이며 객관적인 실재와는 무관한, 도쿄라는 공간을 향한 하나의 주관적인 시선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도쿄 타워나 롯폰기 힐스로 대변되는 '익숙한 도쿄'가 아니라, 작가와 관객 모두에게 낯선 하나의 광경으로서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도쿄'가 된다.

궁극적으로 백승우는 <세븐 데이즈>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을 긍정한다. 그것은 사진 이미지 안에서, 그리고 이미지(사진)와 텍스트(제목)의 관계 안에서 이중적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작가가 포착한 이미지의 기표가 도쿄의 실재라는 실질적인 기의로부터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한편, 이러한 공간적인 시각 기호가 시간적인 텍스트 기호와 완전히 불일치함으로써 제목과 사진의 조응을 '자연화'하는 우리의 기대를 보란 듯이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끄러짐과 배반은 이 작품의 최대 미덕이자 핵심적 요소다. 그 어긋난 틈 사이로 계속해서 풍부한 의미들이 형성되어 나오기 때문이다.